

FICTION

제목 : ROYAL REBEL
가제 : 왕실의 패셔니스타
저자 : Carina Axelsson
출판사: Usborne Publishing Ltd
발행일: 2019년 1월 10일
분량 : 350 페이지
장르 : 11세 이상 소설



*** 프랑스, 우크라이나 판권 계약 체결**

*** “매력적인 왕실 이야기에 당당한 페미니스트의 시각, 그리고 멋진 스타일에 관한 조언이 결합된 재미 있고 대담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 – 영국 출판사 소설 디렉터, 앤 피니스(Anne Finnis)**

프랑스와 독일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평화로운 여왕국 발덴부르크는 모계 혈통을 따라 왕위가 계승되는 국가다. 그리고 현재 여왕인 소피아 12세에게는 이제 열세 살이 된 공주 릴리가 있다. 발덴부르크의 전통에 따라 공주가 열네 살이 되면 공식적인 왕실 업무에 참여하고 왕국을 대표하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적인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만큼 릴리는 열세 살이 된 직후부터 본격적인 ‘공주 수업’을 시작했다. 공주로서 갖춰야 할 예의범절은 물론 왕국의 역사와 한 나라의 공주, 여왕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지 익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지지만, 그 와중에 릴리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이 생긴다. 온라인에서 패션 블로거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티아라 걸’이라는 가명으로 동영상용 통해 ‘공주 스타일링’ 팁을 공유하는 브이로그를 열었는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릴리만의 독특한 패션 정보는 단시간에 사람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얻기 시작한다.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발덴부르크 왕국의 누구라도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 가만 두지 않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릴리는 브이로그 활동에 점점 빠져든다. 이 위태로운 이중생활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공주로 모습을 드러낼 열네 살 생일이 다가올수록 공주 수업 내용도 더 까다로워지고 그만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눈도 많아지는데 ‘티아라 걸’ 구독자 수는 나날이 늘어나던 어느 날, 릴리는 자칫 브이로그 활동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한다.

어릴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릴리는 공주로 공식 데뷔하는 날부터 쓸 수 있는 티아라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그러니 머리 모양에 맞게 잘 어울리는 티아라를 고르고 멋지게 스타일링하는 법을 연구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릴리의 ‘티아라 걸’이 큰 반응을 얻게 된 것도 이런 특이한 정보들 덕분이었다. 화장 잘 하고 옷 잘 입는 방법을 알려주는 블로거들은 세상에 넘쳐나지만, 왕관 고르는 법이라던가 왕관으로 공주처럼 꾸미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마침 열심히 고민한 스타일링 비결을 영상으로 찍기에 딱 적합한 공간까지 발견하면서 릴리의 취미생활

은 한층 더 가열된다. 바로 침실에 붙어 있는, 벽인 줄 알았던 비밀의 문을 열고 나가면 작은 탐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나오는데, 그 계단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먼지가 쌓인 아늑한 방이 나타났다. 릴리는 그곳을 말끔히 치운 뒤, 매 순간 바짝 따라다니는 경호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이 탐에서 블로그에 올릴 영상을 촬영했다. 제일 친한 친구 레오니도 릴리가 온라인에서 '티아라 걸'로 활동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런데 티아라 걸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자, 10대들이 즐겨 보는 패션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새로 등장한 브이로거들 중에서 화제가 된 인물을 찾아 인터뷰하는 코너에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문제는 발덴부르크의 새 공주로 정식 임명될 날이 다가오자 릴리를 공주로서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도 동시에 들어온 것이다. 그것도 같은 날, 몇 시간 간격으로 같은 잡지에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릴리는 한껏 당황한다. 둘 다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매의 눈처럼 매서운 기자들 눈에 티아라 걸이 바로 이 나라의 공주라는 사실이 들킬 수도 있다. 조신하게 공부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패션 블로거라니, 여왕인 엄마에게 혼나는 건 당연하고 온 나라에 망신이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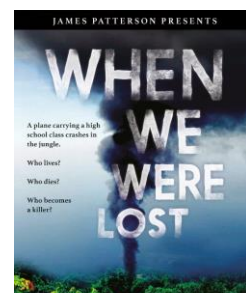
엿친 데 덮친 격으로, 릴리는 또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열네 살 생일을 맞아 각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대형 무도회가 열릴 예정이고, 엄마는 이 행사를 릴리가 공주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삼을 생각이었다. 릴리는 그 동안 해오던 공부 외에도 무도회에 입고 갈 드레스를 준비하고, 춤도 배우고, 티아라도 가르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데 잡지 인터뷰에서 '티아라 걸'로서는 무난히 답변을 잘 해내고 정체도 들키지 않았지만 릴리 공주로서는 기자가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우물대고 만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와 외할머니는 크게 화를 내며 별로 그토록 고대하던 무도회에 릴리는 참석시키지 않기로 한다. 크게 좌절한 그 때, 학교에서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 맥스라는 남자아이를 필두로, 여성 중심적인 여왕국의 통치 방식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불만을 품은 남학생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여왕 후계자로 공식 지명될 릴리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똑똑히 알려야 한다며 다소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오고, 릴리는 태도가 조금 불량할지언정 맥스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다.

티아라 걸 블로그도, 왕국 전체의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여왕의 자리에 당당히 오르기 위한 준비 과정도, 맥스처럼 불만을 토로하는 왕국 구성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처하는 것도 모두 릴리의 손에 달려 있다. 총 다섯 권으로 구성될 시리즈는 여러 모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릴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발전해가는 과정을 흥미로운 사건들과 함께 들려준다.

<저자 소개>

카리나 악셀슨(Carina Axelsson)은 스웨덴인과 멕시코인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캘리포니아에서 자랐다. 뉴욕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보그, 엘르 등에 사진이 실렸다. 이후 작가로 전향하여 베스트셀러 시리즈 『Model Under Cover』를 썼다.

제목 : WHEN WE WERE LOST



가제 : 길을 잃었을 때

저자 : Kevin Wignall

출판사: Little, Brown & Company

발행일: 2019년 봄

분량 : 약 35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영화 판권 계약 / 프랑스, 독일 판권 계약**

*** 고의적인 비행기 추락사고로 외딴 정글에 떨어진 아이들,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그린 소설**

마흔 명의 학생과 인솔교사 세 명, 교사 중 한 명의 아내까지 총 마흔네 명을 태운 비행기가 코스타리카로 향한다. 표면적인 목적은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동식물을 관찰하고 자연을 만끽하는 것이지만, 톰 캘로웨이는 이 단체 수학여행의 목적이 그저 적당한 리조트에 머물면서 대충 쉬다가 돌아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딱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고, 그런 처지가 서글프거나 싫지도 않고 혼자 조용히 살고 싶은 톰에게 이렇게 별 의미 없는 여행이 영 내키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양어머니였다. 엄마아빠가 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신 후, 두 분의 만남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연결고리이자 엄마의 절친한 친구였던 줄리아 아줌마는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홀로 남은 아홉 살 톰의 대모가 되었다. 하지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줄리아는 톰의 엄마라기보다 철이 덜 든 누나 혹은 친구에 더 가까운 존재였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톰의 생각이나 학교생활 전반을 어른으로서 챙겨주는 역할은 거의 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여름을 맞아 이탈리아로 요가 여행을 떠날 계획이던 줄리아 아줌마는 마침 날짜까지 꼭 맞아떨어진다면 수학여행에 꼭 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처럼 애원하고 투정하는 아줌마의 성격을 잘 알기에 톰은 어쩔 수 없이 여행에 나선다.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놀랄 정도로 뜻밖의 결정이었다.

톰이 뛰어난 학교 성적과 한 번씩 수업 시간에 드러나는 예리한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성이 심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에 여러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했다. 줄리아 아줌마가 절대로 꼼꼼히 읽어본 적 없는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그런 사실이 절절히 담겨 있을 정도였다. 다 잘하고 있고 만족스럽지만 교우관계를 좀 발전시켜보라는 충고는 학년마다 빠지지 않았다. 톰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릴 적 누군가가 선물로 준 직소 퍼즐을 떠올렸다. 수백 개가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그 퍼즐에 푹 빠져서 어느 주말에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조각 하나가 잘못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마지막 조각을 딱 한 곳 남은 빈 공간에 끼우려고 하기 전까지만 해도 색깔이나 형태가 영락없이 그 자리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막상 끼우려 하니 맞지가 않았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전체와 어우러질 수 없는 불량품, 톰은 자신이 버릴 수도, 억지로 그림에 끼울 수도 없었던 그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실에 큰 불만도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난 수학여행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면서, 톰의 이 오랜 확신도 서서히 깨지기 시작한다.

줄리아 아줌마는 워낙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고, 아줌마와 함께 수십 번도 넘게 비행기를 타본 톰은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비행기에서는 1등석이나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 하지만 단체 여행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톰이 앉은 자리는 꼬리 쪽에 가까운 꼬트머리 좌석이었다. 이륙 전부터 약간 불길한 일은 있었지만 그 일이 정말로 사고로 이어질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소에도 꿈 얘기를 자주 하면서 아이들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크리스가 큰 소리로 ‘이 비행기는 추락할 것’이라고 외친 것이다. 다들 콧방귀를 끼며 조용히 하라고 짜증을 냈고, 어쩌다 크리스 옆자리에 앉게 된 톰 역시 자꾸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크리스에게 ‘관심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통계적으로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자다가 집에 불이 날 확률보다도 낮다고 진지하게 대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크리스의 예언은 사실이 되고 말았다. 코스타리카 상공, 어느 깊은 정글 한가운데 비행기가 추락하고 만 것이다.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선체 꼬리 부분이 분리된 덕분에 그 쪽에 앉아 있던 열아홉 명의 학생들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중간에 밀집되어 있던 교사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외딴 숲 속에 갑자기 떨어진 아이들 중에는 톰과 함께 지역 정치인의 아들이자 학생회 대표인 조엘 아스피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당연한 듯 전면에 나서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생존자들의 리더 노릇을 할 생각인 것 같았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구조대가 오기 전에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챙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조엘이 이끄는 대로 몸을 누이고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찾던 중에 추가 사망자가 생기고 만다. 언제 구조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정글 속에서 오래 버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조엘은 곧 구조된다는 가정 하에 무작정 기다릴 준비만 했다. 처음부터 조엘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입 다물고 있던 톰은 친하진 않았지만 같은 반이던 토비가 살모사에 물려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자, 자신의 판단을 아이들과 공유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갈수록 어쩌면 조엘의 황당한 판단 능력 대신 남은 아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톰일지도 모른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톰은 점점 더 자신 있게 통솔자로 나서는, 스스로도 상상해본 적도 없는 역할을 해낸다.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생존 기술을 함께 배워가며 걸로만 볼 때는 몰랐던 서로의 삶과 진심을 나누면서, 톰은 불필요하다고 확신했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래들과의 우정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 삶과 죽음이 언제 엇갈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흡입력 있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케빈 위그널(Kevin Wignall)은 랭카스터 대학교에서 정치외교를 공부하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 2001년 데뷔소설 『People Die』를 시작으로 에드가 상과 베리 상 결승에 오른 『Who Is Conrad Hirst?』, 영화화된 소설 『The Hunter's Prayer』 등을 썼다.